

수요신앙교육교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놀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꼭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함을 보고 그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사사시대 내내 어려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력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십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1. () 사람들의 삶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받들어 섬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1) ()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11-12)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① 기적의 종 ()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던 40년의 광야에서 행한 수많은 기적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② ()의 기적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고, 온통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있는 듯한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겨루는 갈멜산에서의 전투!! 850대 1로 싸워 장엄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③ ()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다. 분명히 예지적 꿈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 명합니다. 그들은 ‘왕의 꿈을 말하시면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은 황당합니다. 왕의 꿈을 찾아내어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사람이 어떻게 찾아서 해석한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 2:27-28)

④ ()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기적과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시는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15-16)

⑤ ()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종 병든 자들의 병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 놓아도 귀신이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11-12)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15-18)

→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즉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능력’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금도 ()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받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뜻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8)

→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가치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며 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갈까?’하고 탄식과 같은 물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공식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조건을 갖추면 그 조건에 의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무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3. ()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3-24)

→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그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17-18)

→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이미 제사장으로 섬기던 당시의 실력자 ‘훅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지만,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웠으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1-4)

1)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7)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하나님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② ()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16-17)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헌신과 드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 ()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4:14)

예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